

대학문화와 대중문화

주철환 MBC PD

PD로서의 주특기를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출이라고 말한다. 1980년대 후반 무려 3년간이나 맡았던 <퀴즈 아카데미>, 1990년대 중반 대학생 인턴PD 60여 명과 함께 '희망의 나라'라는 가상제국의 정부를 건설하려 했던 <TV 청년내각>,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노래와 우정의 잔치 <대학가요제>를 여섯 해 동안 연출해 왔기 때문이다.

잘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도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어서 나는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어릴적부터 교단에 서길 꿈꾸었던 이력과 시간이 흘러도 늙거나 늙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나를 TV 속에서 나와 젊은이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몸은 대중문화 깊숙히 박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대학 문화를 그리워하는 내 처지 때문인지 그 두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질문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문화'는 소리나는 그대로 '대항문화'여야 한다는 게 나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허위와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굳이 대중과 담을 쌓을 명분이 없다. 많은 대학들의 교훈에 진리와 정의, 그리고 자유가 들어 있는 까닭도 결국은 대학과 대학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그 세 가지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문화 종사자인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제는

대중의 취향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다. 조금이라도 그 계산이 빗나가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훼손된다. 지금 대중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늘 두 눈과 귀를 - 가능하다면 마음까지도 -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저런 연유로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방송을 접하게 될 때 상큼하다는 느낌보다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더러 있다. 그들의 실험과 패기에서 자극 받으려 했던 나는 대학방송인들이 오히려 대중문화 따라하기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에 질겁을 하게 된 것이다.

젊음이 특권을 누리려면 순수의 영토에 머물러야 한다. 명분보다 실속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일견 합리적인 듯하지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길게 보아 영리한 결단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중문화의 화두가 '재미'라는 걸 나는 진작에 발견했다. 재미있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TV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드라마도 쇼도, 심지어 뉴스나 다큐멘터리도 일단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TV는 강조하고 또 실천한다. 재미있는 것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거나 아니면 재미를 전문적으로 창안해 내는 자들을 부단히 카피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요한 사실은 재미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는 진짜 재미, 다른 하나는 가짜 재미다. 진짜 재미는 인간

성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실컷 웃고 나서도 따뜻한 느낌이 남는다. 진짜 재미는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채널 가득히 벌려놓는 게 아니라 대중이 보아야 할 것들, 모르고 살았거나 알았더라도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재미다. 지금 TV 속에 가짜 재미가 판치는 것은 세상을 넓고 깊게 보지 못하는 제작진들의 우둔함 탓이 크다. 그들은 문화적 근시안이다. 그들은 수치로 나타난 막대 그래프를 가리키며 "보세요, 이만큼 높잖아요"하며 바보처럼 웃고 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이 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눈앞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 재미가 끝난 후에 무엇이 남고 마침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진짜 재미는 감동이라는 호명한 선에 연결되어 있다. 그 재미는 강렬하진 않지만 오래 간다.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마 그 길의 종점 부근일 것이다.

대학문화와 대중문화가 만나야 할 곳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지점이다. 뜻밖에도 대학문화의 토양이 다양성과는 거의 대척점에 놓여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획일화는 차별만큼이나 나쁘다. 대학문화와 대중문화가 추구해야 할 공통적인 미덕은 남의 생각, 남의 취향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고 온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낮은 슬로건이긴 하지만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나는 자주 되새긴다.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보라색 꽃도 피는 꽃밭이 아름답지 않은가.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것을 판단하는 데도 철인의 지혜가 필요한가) 안에서라면 모든 생각, 모든 표현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문화건 대중문화건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삼류에 불과하다.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70년대에는 장발 단속을 하는 경찰이 가위를 들고 거리에서 대학생들을 쫓는 풍경이 심심찮게 연출되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평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만큼은 누구도 장발에 대해 큰 소리내어 시비를 거는 자가 없었다. 보수적인 원로교수들도 눈살을 찌푸릴 뿐 표나게 나무라지 않는 분위기였다.

귀걸이에 울긋불긋 염색한 머리의 남학생을 보고 "대학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 바로 그 모습이 '70년대 장발에 물들인 군복을 입고 교정을 거닐던 대학생의 세기말 버전인 것이다. 그들과 마주앉아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내가 만난 대학생들은 여전히 기성세대보다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이다. 기성복을 입었다고 기성세대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무슨 의상을 걸쳤느냐에 대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 가짜 재미가 아닌 진짜 재미로 - 인생과 세상을 연출할지 고민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대중문화의 속악함을 나무라지만 말고 그 속의 진짜 재미를 찾아 거기에 의미를 보태는 일, 그것이야말로 대학문화와 대중문화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박민**

주철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MBC방송국 PD로 재직중이고 '퀴즈 아카데미', '우정의 무대', '일요일 일요일밤에', '테마게임' 등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연출했으며, 한국방송대상, 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고려대, 서울에전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출강중이다. 저서로는 '퀴즈아카데미 1, 2', '주철환 프로듀서의 숨은 노래찾기', 'PD는 마지막에 웃는다', '상자 속의 행복한 비보', '사랑이 없으면 희망이도 없다' 등이 있다.